

# 전남대 신입생 10명 중 3명 “공무원 되고 싶어요”

## 3560명 취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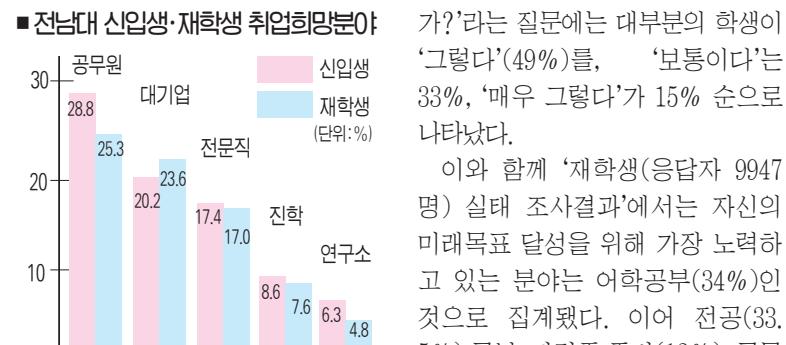
전남대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도 10명 중 3명은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대 취업지원과 심리상담실이 2010학년도 신입생(응답자 3560명)을 상대로 최근 실시한 ‘신입생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8%가 졸업 뒤, 공무원 직렬에 취업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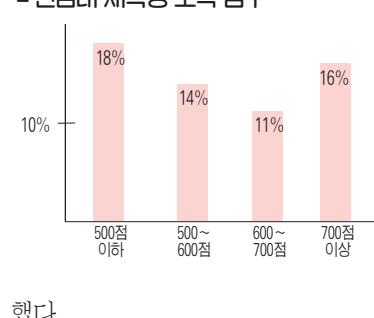
응답자들은 공무원에 이어 대기업(20.2%), 의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17.4%), 진학(8.6%), 연구소(6.3%) 등의 순으로 취업을 희망했다.

직업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 1순위에 대해 학생들은 적성(27%)과 연봉(24%), 자아실현(24%), 안정성(10%), 사회적 인정(8%), 전망(6%) 등의 순으로 응답

## ■ 전남대 신입생·재학생 취업희망분야



## ■ 전남대 재학생 토의 점수



했다. ‘전남대 학생이란 것이 자랑스러운

가?’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49%)를, ‘보통이다’는 33%, ‘매우 그렇다’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학생(응답자 9947명)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자신의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어학공부(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공(33.5%), 공부, 자격증 준비(12%), 공무원·임용고사 등 시험 준비(8%), 컴퓨터 활용능력(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영어 토의 점수를 묻는 질문에는 700점 이상 16%, 600~700점 11%, 500~600점 14.4%, 500점 이하 18.1%로 적었다. 또 재학생들의 취업 희망 분야 순서는 1위가 공무원(25.3%)인 것을 비롯해 신입생과 동일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안에 수중모터 총 37대에서 순간 최대 630마력으로 물을 뿜어내는 음악 분수를 설치해 ‘불거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저수지 내 섬에 야외무대를 설치해 저수지 수변공간과 섬을 연계, 정자·90m 자연형 계류·관찰용 데크 등도 설치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질 개선과 환경 정비·도심 속의 숲·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운천저수지가 숲과 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호수공원으로 탈바꿈했다”며 “시민들이 이러한 공간을 성숙하게 이용해 오랫동안 그 명성을 이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운천저수지에 이어 북구 양양·용봉저수지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예정이 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백아산 6·25 용사 유해발굴 현장



31사단 장병들이 화순군 백아산 일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실물을 보여주고 있다. /회순=나명주기자 mjna@

## 탄피·도시락 등 유물 대거 출토

## “유골 발굴 가능성 높다” 큰 기대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땅속에는 동족상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향토사단 31사단(사단장 모종화)은 최근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방부 감식단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리산 전투에서 유골 발굴작업을 벌였다.

최근 회순 백아산 정상 부근인 문바위 삼거리 반경 50m에 있는 60m 길이의 교통호와 20여곳의 개인호에서 벌어진 유해발굴 작업에서 6·25 전사자들의 유골을 찾지는 못했지만, 전사자들의 유물과 전쟁 당시 사용된 물품들이 다수 발굴됐다.

이번 발굴작업에서 발견된 탄피와 실탄은 칼빈소총 탄피 13개·M1 소총 실탄 4개·M1 소총 탄피 80개·모사나카트 탄피 89개·미상탄 탄피 11개 등 총 197개. 이외에도 수저, 통조림과 도시락 뚜껑 등 전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회순=김호기자 kimho@

백아산 전적지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빨치산들에 의해 아군 480명이 전사당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31사단은 이번 발굴작업에서 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대대적인 발굴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발굴에 동참한 전남대 인류학과 대학원생 윤다정(여·24)씨는 “주로 고분과 주거지 발굴을 했는데, 전사자 발굴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아직 유해를 찾진 못했지만 역사의 현장에 서있었다는 점 만으로도 뜻깊었다”고 말했다.

31사단 관계자는 “발굴 현장에서 6·25 당시 물품들이 대거 발견된 것은 전사자들의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사자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라도 유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회순=김호기자 kimho@

## 학 달라진 운천저수지

## 음악분수·전망데크 등 오늘 개방

광주시 5대 저수지 중 하나인 운천저수지가 7일 8개월 만에 새롭게 단장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광주시는 6일 “지난 2009년 10월부터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운천저수지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돼 7일 오후 8시 저수지 내 음악분수 시연회를 갖고 야외무대·전망데크 등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매일 1000여명의 광주시민들이 찾을 정도로 지역 명소인 운천저수지는 그동안 퇴적물이 쌓이고 물 흐름이 막히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심공원 내 5대 저수지 환경개선사업의 첫 대상지로 운천저수지를 선정해, 공사를 추진해왔다.

이번 공사를 통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그 흙으로 녹지를 확장했으며, 호수 수심을 평균 1.8m로 조성해 무분별한 연못의 확산을 막았다.

한편 광주시는 운천저수지에 이어 북구 양양·용봉저수지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사업을 별도로 예정이 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물 05시 18분 해진 19시 45분

달辱 01시 25분 달진 14시 34분

## 소나기 피하기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18/31°C
목포	차차흐려짐	16/26°C
여수	구름많음	18/25°C
완도	구름많음	17/29°C
구례	구름많고한때비	16/32°C
해남	차차흐려짐	16/29°C
장흥	구름많음	16/28°C
고흥	구름많음	16/28°C
순천	구름많음	17/30°C
영광	차차흐려짐	17/29°C
진도	구름많음	16/29°C
전주	흐린비맑음	18/29°C
남원	차차흐려져비	15/29°C
옥산도	차차흐려짐	15/21°C

〈오전〉	비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일비다	북동~동	0.5~0.5m	09:23	02:59	0.5~1.0m
만비다	북동~동	0.5~0.5m	0.5~1.0m	22:20	15:22	
남해 서부	일비다	북동~동	0.5~0.5m	04:40	11:02	
만비다	북동~동	0.5~0.5m	0.5~1.0m	17:29	23:3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날씨

최저/최고 17/31 18/29 18/27 18/27 18/27 18/29

달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날 일부 서구 생촌동과 광산구 월곡동에는 직경 0.5cm의 우박이 내렸으며, 최대 52mm의 비와 순간 초속 12.7m의 돌풍이 불었다. 가시거리도 평상시 15km에서 2km로 크게 떨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5km 상공에 영 17도의 찬 공기가 위치하고, 지상 기온이 31.2도에 육박해 대기와 지상 간 기온 차가 48도나 벌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적란운(積亂雲)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풀었다. 상하층간 기온차가 많이 날수록 공기가 강하게 부딪혀 적란운이 수직으로 발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

날선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초슬립!!

50 만원~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

날선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초슬립!!

50 만원~

이태리 좌탁, 식탁 특별전 50% ►

날선 헤어 기능장 1호 大山프리모남녀기발

가발 초슬립!!

50 만원~